



■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모색을 위한 4차 토론회 예고보도(2016.06.15)

6. 16(목),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고입전형 및 고교체제, 대입전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관련 4회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 ▲ 이번 6월 16일(목) 오후 2시, 마지막 4차 토론회를 통해 자유학기제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입전형·고교체제 및 대입전형의 개선을 모색하려 함.
- ▲ 본 단체 안상진 부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경기도 교육청 김성천 장학사, 용마중학교 김태훈 교사, 가톨릭대학교 성기선 교수, 이우학교 이광호 교장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4일부터 올해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4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목) 오후 2시에는 마지막 4차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앞선 토론회들을 통해서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수업·평가·기록의 개선을 통한 학교 혁신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중학교 교육에 정착되고 고등학교 교육현장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입전형, 고교체제, 대입전형의 제도적 문제가 우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단체 안상진 부소장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김성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김태훈 용마중학교 교사, 성기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가톨릭대학교 교수), 이광호 이우학

교 교장의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 제도 안에 의미 있는 교육혁신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모색을 위한 4회 연속 토론회
- 주제 :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고입전형·고교체제 및 대입전형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 일시 : 6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요 일정

일시	토론회명	■ 발제 □ 토론 (가나다순)
1차 05/04(수) 오후 2시	자유학기제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까지 왔는가?	■ 성열관 교육대학원장(경희대학교)
		■ 안상진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기숙영(학부모)
		□ 이수광 선임연구원(경기도 교육연구원)
		□ 이종걸 교사(근명중학교, 좋은교사운동)
2차 05/17(화) 오후 2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아일랜드, 일본
		■ 서우철 장학사(의정부 교육지원청 꿈이룸학교) : 경기 꿈이룸학교
		■ 송순재 교수(감리교 신학대학, 삶을 위한 교사대학 이사장) : 덴마크
		□ 김은정 선임연구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차 06/01(수) 오후 2시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평가의 개선과 확산 가능성을 살핀다.	■ 김진우 공동대표(좋은교사운동)
		■ 지은림 교수(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덕년 장학사(경기도교육청)
		□ 김선희 수석교사(명일중학교)
		□ 박수경 연구사(교육부 공교육진흥과)
4차 06/16(목) 오후 2시	자유학기제를 통한 고입전형 및 고교체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	■ 안상진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김성천 장학사(경기도교육청)
		□ 김태훈 교사(용마중학교)
		□ 성기선 교수(가톨릭대학교, 경기도울곡교육연수원장)
		□ 이광호 교장(이우학교)

2016. 6.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